



조계종, 태국 홍수 재난에 3차 구호대 파견



왓차이(WAT chai Wattanatam community) 사찰 청소 및 페인트 등 수해복구 활동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태국의 홍수피해 구호사업의 아름다운 회향을 위하여 1차 선발대, 2차 구호대에 이어 의료구호대를 중심으로 한 제3차 구호대를 파견했다. 활동은 2012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였으며,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을 단장으로 총 18명이 태국 홍수 피해 복구를 현지인들과 함께 했다.

3차 구호대는 두 차례의 활동을 바탕으로, 아직도 아물지 않은 피해 지역(아유타야, 돈무앙, 나뽀파툼 지역)을 중심으로 1억여 원(대한불교조계종 6천만원, 종단협 4천여 만원)의 후원금 전달, 의료봉사(보문종 지원), 현지 대학 및 유치원 봉사, 지역 사찰에 대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구호대는 종단의 구호 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태국 현지에서는 WFB본부의 협

조로 현지인 50명, 한마음선원 봉사대 10명, 재 태국 한인회 등 다양한 봉사 단체들의 참여로 화합된 모습의 구호 활동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종단은 3차 태국 구호활동을 계기로 형식적이거나 일회성 구호활동에서 벗어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불교적 봉사 활동의 발전된 모습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종단의 다양한 구호 주체 간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의 추진 및 상호 교류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며, 불교 국제구호의 역량을 진일보시키려 한다.

구호대는 태국 홍수로 인한 피해는 아직 아물지 않은 진행형이므로 재(재)아름다운 동행(02-737-9595)을 통한 스님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휘광스님, 초대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장 취임



교구장 휘광스님 진산식 후 기념촬영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는 1월 8일 미 뉴욕 소재 불광선원에서 초대 교구장 휘광스님(불광선원 주지)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진산식에는 총무부장 영답스님, 중앙총회의원 정범스님, 현각스님(법독일 포교활동 중), 뉴욕 총영사관 부영사과 중앙일보사장, 뉴욕한국문화원장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치사를 대독한 총무부장 영답스님은 "영세한 사찰규모, 교포 중심의 해외포교 활동 등 그간의 관행과 시스템이 문제였다"며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수년간의 활동과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세

계화를 위해 해외교구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대교구장 휘광스님은 "앞으로 해외교구를 통해 교포 15세와 2세, 미국 현지인들의 출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큰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1,700여 년의 한국불교를 돌이켜 볼 때 해외특별교구의 시작은 한국불교 국제화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아사 주지 석담스님과 고병희 뉴욕 청소년재단 어머니회 회장이 총무원장 명의의 포교상을 수상하였다.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지역 16개 주와 캐나다 동부지역 6개 주 사찰에 대한 일반

법전 종정예하, 임진년 신년교시 내려

법전 종정예하께서 종도들에게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서 불퇴전의 각오로 무사위(無事位)를 향해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신년교시를 내렸다.

종정예하는 1월 5일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불기 2556년 신년하례 법회에서 "무사귀인(無事貴人)은 언제나 나를 비움으로써 저절로 얻어지는 자리이고 서로를 낮춤으로써 서로에게 더욱 귀해지는 자리"라며 "동상이몽의 번뇌가 중중무진이지만 열뇌를 식히고 부동이화(不問而和)도리를 깨우쳐 사부대중은 무사인의 본래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가르침을 내리고 종도들의 화합을 당부했다.

신년하례는 법전 종정예하의 헌화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헌다, 부처님 앞에 3배를 올리는 통알, 종정예하 하례와 신년교시, 원로의원 및 총무원장 신년하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인사말, 기념촬영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임진년 한 해 동안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라는 교시를 받들어 화합을 근간으로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종단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올해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불기 2556년 한해의 안녕을 기원했다.

행정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진산식 이후 곧바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해외사찰 활성화 및 한국불교

세계화 그리고 국제 불교 활성화에 대한 논의와 신도증 발급, 스님들 및 포교사 지원, 템플스테이에 교포와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문제 등의 건의가 있었다. 편집부



한국 선불교 국제화를 이끄는 ‘국제선원 무상사’

2000년 3월에 창건된 무상사(주지 대진 스님)는 오랜 역사와 강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선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국제선원이다. 무상사는 송산 큰스님의 참선수행을 따르고자 하는 내·외국인 승려, 수녀, 일반 재가자들에게 수행 공간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선수행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후에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그곳의 선원을 돕고 있다. 한국의 모든 선원과 마찬가지로 무상사에서도 해마다 2~3개월씩(여름과 겨울) 집중적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결제란 세속적인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 참선 수행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무상사는 신비한 기운이 강하기로 유명한 계룡산에 있다. 5년의 기간 동안 계룡산의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둘러본 송산 큰스님께서 마침내 1998년 말, 현재의 장소를 선택하셨다. 국사봉 정맥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오래 전부터 무학대사가 800명의 위대한 선사나 국사가 배출된다

고 예언하였던 바로 그곳이다.

멀리 아래쪽에는 산과 들이 자리하고 있어 전망이 좋고 계곡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무상사에 오는 방문자분들께 강한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현재 이곳 무상사에는 미국에서 오신 대봉스님께서 머물고 계신다. 대봉(도원)스님께서서는 송산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황무지를 개간하여 절을 짓고 창건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절과 함께 하신 무상사 역사의 개척자이시다. 또한 20여 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대웅전 건설과 그의 무상사의 다양한 일들을 도맡아 해오신 미국인 대진(무심)스님도 상주하고 계신다.

송산 큰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으신 두 분의 스승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무상사 국제선원에는 매년 최소 3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의 불교단체와 세계각지의 100여 개 선센터에서 무상사를 찾아



부처님 성도제일 가행정진을 마치고 기념촬영

와 수행하고 있다.

무상사 스님들과 외국인들은 주로 화두 참선을 한다. 매일 아침 108배와 참선, 운력, 포행으로 하루 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대진스님이 엮으신 “온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는 공안집으로 수행을 점검하고 계신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는 부

처님 성도제일 가행정진이 있었다. 성도제일 일주일 전에 시작되는 가행정진 기간의 처음 6일 동안은 하루 3시간만 수면하며 수행하고, 7일째는 철야정진 한다. 3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가행정진에 참여하였고, 마지막 날의 철야 정진 때는 신도님들 20명이 함께 밤새 수행정진 하였다. 무상사 www.musangsa.org

큰 꿈을 향하여! ‘제1회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 개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각 사찰에서 신형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청소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사찰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가졌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스님)는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월 7일까지 뉴욕, 뉴저지, LA 등 동부와 서부 등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의 후원으로 ‘제1회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를 개최했다.

조계사, 국제선센터, 옥천암에서 청소년 부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41명은 불교문화 교류를 통한 세계불교 이해 및 배우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대학교 및 가정 방문 등 청소년 교류를 통한 불교 인재 양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수단을 꾸리게 되었다며 정범스님은 설명했다.

첫 목적지인 뉴욕 불광선원에서는 지난 여름, 한국에 와서 불교와 문화 체험을 함께 했던 청소년들이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졌던 인연이 있어서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박진하 학생은 “반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매우 반가웠고, 멀리 미국에도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주신 부모님과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연수단의 또 하나의 목적인 하버드대학 등 미국의 우수 대학 등을 탐방하며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보스턴 문수사, 샌프란시스코 보리사, 베이커 필드 태고사, LA 정혜사 등 미국 내 한국

사찰 등을 돌아본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불교를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 연수단에 참가시킨 학부모 이승희 보살은 “우리나라 불교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싶었고, 견문을 넓혀 아이들의 미래 지표를 잡는 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넓은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담아오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나라의 장래와 사회의 일원 그리고 가정의 미래로서 손색없는 젊은이들이 되길 서원하는 마음 가득하다. 학부모와 연수단원들이 연수단을 이끌고 고군분투 하신 KBIN 대표 정범스님, 사무국장 상인스님, 청소년봉사 혜강스님께 감사드린다는 댓글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 있다.

글 KBIN 간사 선정화



(위)뉴욕 불광선원에서 연수단 입재식이 있었다. (아래)버클리대학 생명공학과 뿌리와 줄기가 뒤바뀐 나무

불교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사상가’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1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사상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내 한국 불교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라 원효스님을 비롯해 당나라 종밀스님, 법장스님, 고려 지눌스님, 일본 도겐스님 등의 사상을 조명했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는 기초 강연에서 한국불교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특히 티베트의 유명한 학자 총카파는 티베트 교학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구제화 하는데 원측스님의 해심밀경소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해심밀경소가 티베트 교학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김종욱 원장은 “한국사상가와 불교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동아시아의 공존과 화해를 모색하는 모습을 찾아서 세계와 지역이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위원회 회의 개최

2011년 12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사회부 주관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국제교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원장인 사회부장 혜경스님, 포교부장 송묵스님, 국제교류위원 진월스님, 해민스님, 이치란님 등과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안건으로 WFB(세계불교도 우의회) 한국대회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진행상황과 국제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네트워크 구축, 불교 의식 영문 제작 등 국제팀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또한, 올해의 가장 큰 행사인 WFB 한국대회를 앞두고 지역 포교 활성화 연계 및 프로그램 진행 관련 역할

분담 등 의견 수렴을 통한 WFB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주요 사안이었다.

6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대회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직위원회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국제교류위원 좌로부터 해민스님, 진월스님, 혜경스님, 송묵스님, 이치란님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지구촌공생회 송월주 이사장스님은 11월 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영화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이번 서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송월주 스님은 「나눔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후손에게는 정신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앞장섰으며, ◇「함께 일하는 재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업, 나눔을 몸소 실천하였고, ◇「지구촌공생회」대표로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케냐, 미얀마, 스리랑카의 7개 저개발국 빈민구호 활동, 아동교육지원 사업, 위생교육 사업 등 국외에서 활발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공적 요지를 밝혔다.

월주스님이 창립한 지구촌공생회는 창립 10년이 안 됐지만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얀마에 학교 6곳, 몽



영화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신 월주스님

골에 유치원과 청소년 센터 각각 1곳을 설립했고 현지 주민들에게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청소년센터 1곳을 건립했다. 또

라오스에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과 청소년센터 1곳씩을 건립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생명의 우물' 2,000기를 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4곳과 유치원 2곳을 열었다. 아

프리카 케냐에도 우물 13기를 완공했으며 농업교육과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된 스리랑카에도 3곳의 유치원과 도서관 1곳, 버섯농장 2곳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단순한 후원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도움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촌공생회는 그동안 케냐, 몽골, 캄보디아에 집중되었던 식수지원사업을 미얀마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몽골과 케냐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교육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훈장을 수훈한 송월주 이사장스님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발전과 인류 공존·공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력을 다시 세워, 「지구촌공생회」와 「함께 일하는 재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지구촌공생회 www.goodhands.or.kr

참좋은인연BUD, 네팔 룸비니에서 부처님 점안식 봉행

2011년 12월 23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주지 우학스님과 신도 40여 명이 법당에 모실 부처님을 모시고 네팔 룸비니 프리니하와마을을 방문하였다.

부처님 출생지인 룸비니는 1998년에 세계문화 유산지역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지역 내에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 중의 하나로 몇몇 마을에 둘러싸인 시골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60% 정도이고 여성은 35%에 그친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단지 51%의 어린이만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룸비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관음사 주지 우학스님은 이를 안타까워하시고 학교와 법당을 룸비니 프리니하와마을에 건립하기로 하였다. BUD METTA SCHOOL(초·중·고등학교)은 2012년 4월중, 룸비니 법당은 3월중 완공 예정이다.

이날 마을 사람들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점안식이 봉행되었다. 우학스님은 법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말씀하시며 학용품과 옷을 전달했으며, 학부형들에게도 학생들의 공부를 잘 돌봐 줄 것을 당부하셨다. 우학스님은 이곳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일 년에 한두 번 한국 청도에 있는 이서중고등학교에 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학스님은 참좋은인연BUD가 펼치고 있는 구호사업을 중간점검하고 다음 사업

지를 선정하고자 인도 등 다른 지역도 둘러 보셨다.

참좋은인연BUD는 향후 네팔 포카라 라족마을 BUD 보육센터에도 법당을 설립할 계획이며,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도 법당과 학교 및 보건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와 네팔 지역에 지속적인 식수 개선사업인 워터펌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는 2012년 봄부터 미얀마 난민 어린이 수술지원 활동을 이서고등학교의 'BUD이서 해외봉사단' 학생들과 함께 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인도와 태국, 필리핀으로 사업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글_ 임형욱 사무국장

참좋은인연BUD 053-471-8229

▼ 룸비니 법당 부처님 점안식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쁘레이끄랑 마을은 350여 가구 3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민들이 논농사를 짓는 캄보디아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마을이다.

현재 (사)위드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쁘레이앵주 빈민지역인 쁘레이끄랑 마을과 끄로웃 마을에서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각 가정은 물론이고 공부방과 마을회관에도 화장실이 없다. 70대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많은 불편함과 창피함을 느끼면서도 평생 대소변을 들판이나 노천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이렇듯 대소변을 해결하다 보니 분비물의 오염으로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우기에는 인분이 비에 섞이고 심지어 우물까지 스며들기도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강이까지 차오른 오염된 물이 몸에 닿아 조그마한 상처도 세균 감염이 커 큰 상처로 번진다. 거의 유일한 치료책인 민간요법으로 만든 약조차 오염된 물로 만들다 보니 대부분의 환자가 2차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과 노약자들이 수인성 질환으로 병을 앓거나 죽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1위이며 특히 쁘레이앵, 캄퓌트, 따께오주는 캄보디아 내에서도 수인성 질환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다. 또한 이들 빈민마을의 경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캄보디아의 마을 평균치보다 환자의 수가 5배 더 높다.

캄보디아 빈민마을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위드아시아는 '한마을 공동화장실 짓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 시작한 마을 공동화장실 건립 캠페인은 많은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 2011년 12월 말 현재 20개소의 화장실을 건립하였고 10개소의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화장실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도 위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여 일부 집들은 예전 같지 않게 깨끗해졌으며 위생관리와 청소소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다. 앞으로 (사)위드아시아는 2011년 11월 공동화장실 6개 건립을 시작으로 1차 108개 건립을 목표로 '한마을 공동화장실 짓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사)위드아시아 051-322-7902

태국 한마음선원, 생활 속 참선 도량, 정성 다해 포교

스님들과 불자들이 태국에 한국 절을 세우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 이루어지지 않던 중, 1999년 2월, 방콕에 거주하는 뜻 있는 한국인 불자 9가구가 모여 <태대 한인 불자회>를 발족하였다. 불자회는 먼저 태국 내에 한국 교회는 20여 개가 있음에도 한국 절은 하나도 없는 현실을 안

타가워하며 한국 절을 세우기로 발원하였다. 그리하여 인연 있는 분을 통해 한마음선원에 법회와 지원(支院)을 내어 주기를 청원하였다. 마침 대행 큰스님께서 불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시자, 수쿰빗 71가(街)에 세를 얻고, 같은 해 4월 대행 큰스님이 오셔서 점안식

을 봉행되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 있는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함으로써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이 탄생하였다.

태국 한마음선원은 개원 후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법회를 하고, 더불어 학생회 어린이회 법회도 열고 있다. 그리고 주중에는 거사립, 보살님 신행회 등 각 법회를 열고, 방콕에서 150km 떨어진 파타야 법회도 연다.

2001년 9월에는 새 불사 터에서 첫 삼을 뜨고 108일 후, 이듬해 1월 수쿰빗 63선원에서는 불교행사와 함께 한국 명절 때의 합동 차례와 전통문화 행사도 아주 중요하게 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한국을 떠났거나, 외국인부모 아래 자라서 한국의 설, 추석, 차례, 떡국, 송편 등 우리의 고유문화를 몰라 동질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춤, 사물놀이, 화관무, 삼고무, 태권도 등을 준비하여 봉

축문화제를 열고, 인연으로 법당에 모인 태국인, 서양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국을 느끼게 하고, 또한 태국 전통무(舞)도 하여 부처님 품에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이 마시는 물과 공기가 있는 태국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연말에는 '한마음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태국 고아원과 학교 및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불교의 나라 태국에 사는 교민들 대부분이 관광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정상 유동성이 매우 많지만, 소임을 맡은 혜단·혜규 스님은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인 참 나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며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생활 속의 참선 도량'으로 인연 닿는 이들에게 정성을 다해 포교하고 있다.

태국 한마음선원 +66-2-391-0091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불우이웃돕기 및 송년회' 개최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회장 만성스님)가 주요 연례행사로 실시해 오고 있는 '불교연말 불우이웃돕기 및 송년회'가 12월 11일 한인타운에 있는 만리장성에서 열렸다. 올해로 4번째인 행사에는 이웃돕기를 열망하는 각 사찰의 불자 200여 명이 참석,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안을 사랑의 열기로 훈훈히 채웠다.

오후 5시 30분이 되자 식이 시작되었다. 회장인 만성스님의 묵탁소리에 맞춰 반야심경을 봉독하였고, 이어진 인사말을 통해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며 불자들의 참다운 모습"임을 강조하면서 "복은 스스로 지어야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이다"라며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지난해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6,000여 달러의 기금이 모였다. 모여진 사랑의 성금은 한인 홀리스를 위해 잡자리를 제공해주고 애쓰는 성공회의 김요한 신부에게 전했고, 이외에 점퍼와 침낭을 구입해서 한인타운과 오픈지카운티 그리고 멀리 샌디에이고의 홀리스에게 전달했다."고 지난해의 사업 결과도 보고했다. 또한 만성스님은 "올해에도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낙관하면서 "지난해 홀리스들 중에는 팬티 같은 속옷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해에는 그와 같은 생필품도 구입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 고문인 현일스님(OC 법왕사 주지)은 "올해에는 OC 지역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불교에서 송년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온고지신과 통하는 것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좋은 것은 계속 해가고, 나쁜 것은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이날 행사의 참 의미"임을 재차 강조했다. 1부 행사에 이어 저녁식사를 나눈 참석자들은 2부에 민속춤과 장기자랑을 하면서 2011년 한 해 동안의 부처님 자비를 되새겼다.

글: 만성스님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고문 현일스님(좌, 두 번째)과 회장 만성스님(가운데)

LA 선각사, 효사랑 실천으로 한해 회향

대한불교 조계종 오대산 월정사의 LA 분원인 선각사(주지 선학스님)에서는 연말을 맞아 12월 11일 한인커뮤니티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출연진을 살펴보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 문화센터 강사, 무형문화재 전수

자 등이다. 이들은 종교를 떠나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정신인 효(孝)를 위해 십시일반 참여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인근에 살고 있는 덕수, 해월, 봉만스님들과 불교에 관심 있는 많은 외국인 등

100여 분이 넘게 동참하여 축하해 주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주 지역 사찰에서 주최하는 행사로는 드물게 불교 행사가 아닌 커뮤니티 봉사 이벤트로 치러졌다. 사물놀이 판소리 고전무용 등이 불거리로 마련되었고, 사찰 스타일의 정갈한 식사도 제공되었다.

행사를 준비한 선학 스님은 "한국과는 달리 미주에 계신 노인들의 겨울은 특히 더 외롭다고 느꼈다"며 "하루지만 정갈한 먹거리와 한국의 소리 춤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선각사가 8가와 후버쪽에 위치해 있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인아파트와 가까워 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었다."고 덧붙혔다.

LA 선각사 +1-213-487-6768



뉴욕 불광한국문화학교 봉사자,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 병설 불광문화학교(교장 선문스님)는 교육기간 중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고등학생 13명에게 대통령상을 전수했다.

1월 1일 큰법당에서 신년법회를 마친 후 가진 전수식에서 수상자들은 학교관계자, 학부모, 불자들이로부터 축하인사와 꽃다발을 받았다. 이날 홍유경 홍보 디렉터는 "이번 상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동안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보조 교사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갔다"며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나와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쳐 준 공로가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금상은 이지민양을 비롯하여 2명, 은상과 동상은 각각 5명이며 상장과 배지, 대통령 축하서한문을 함께 받았다. 수상식에 참석한 휘광스님은 "수상을 축하한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학생들을 보니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고, 계속해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격려했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2007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다문화 수용하기 위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인상 정립과 한국문화 및 민족혼 구축, 그리고 한글교육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뉴욕 불광한국문화학교 +1-646-837-1388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스님이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을 전달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화원, 15주년 개원 기념법회 봉행



연화원은 고 원명스님께서 1996년 창건하셨다. 현재는 원명스님의 상좌인 일조스님이 개원 기념법회를 위해 싱가포르에 와서 약 한 달간 머물며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1월 1일 기념법회 날에는 대각화 보살님의 제자 2명이 가야금을 연주하여 개원을 축하했다. 대각화 보살님은 싱가포르 문화원에서 인도, 스리랑카, 영국 등 세계 각국의 문화연주가 있을 때나 각국의 외교 사절단이 모이는 한국대사관의 개전절 행사 때마다 나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연화원의 자랑스러운 불자이다.

일조스님은 이날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시는 법문을 하셨다. 일조스님은 "16살 때부터 각국의 불교에 관심이 많아 불교 책을 섭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불교에 더욱더 관심이 생겨 원명스님의 법문을 들

기 전에도 한글과 한문을 공부하고 있었"고 했다.

1991년 원명스님께서 키르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일조스님에게는 온갖 망상 중 특히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일주일 이상을 머리 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곧바로 돌이키곤 했다고 말하면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긍정 에너지로 돌리는 연습을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15주년 기념법회를 맞아 연화원 불자들은 고 원명스님을 추모하는 마음을 더욱 애절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생활 속 수행활동에 더 열심히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연화원 cafe.daum.net/singyeonhwawon

스위스 법계사 무진스님,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봉사활동

법계사 주지 무진스님은 영국 출신 스님으로 더글라스재단(Douglas A Campbell Foundation)을 이끄는 세 분의 이사 중 한 분이다. 더글라스재단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돕고 있다. 무진스님은 벌써 12년째 재단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였다.

먼저 캄보디아에서는 왓 오프트를 방문하였다. 왓 오프트는 현재 56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절로 아이들 3분의 1이 HIV 양성자이다. 아픈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들과 격리하지 않고 함께 돌보는 등 HIV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스님 일행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과 여러 물품을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재단에서 절 한쪽에 지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숙소도 방문해서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가난한 마을과 병원도 방문해 쌀을 보시하고 필요한 물건도 나누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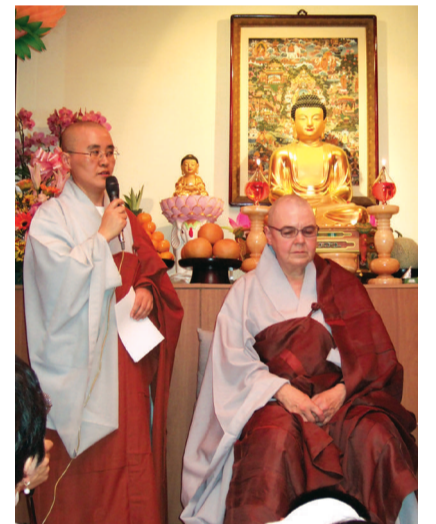
다음은 근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미얀마로 가 스님들이 운영하는 트완데이 고아원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640명의 고아들이 머물고 있었다. 아이들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환경에서 밝고 명랑하게 지내고 있어 무진스님은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했다. 아이들을 위해 재단이 세운 건물의 입주식이 있었다. 이날 무진스님은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공양했다. 이어 카나조곤 마을을 방문했다. 무진스님은 이곳에서 더글라스재단이 가족이 없는 10여 명의 노인들을 위해 짓고 있는 건물에 들어서 건축 상황을 점검했

다. 이 마을은 1924년 천주교 신부님들이 들어와 건물도 짓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곳이다. 현재 카란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어 있다. 스님 일행을 안내한 카를로스신부님은 선교사들이 개종을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학교를 지어주고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서로 친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곳 외에도 어린 사미니들이 함께 살면서 공부하는 절과 고아원에도 방문해 책과 공책을 보시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랑가마티를 방문했다. 더글라스재단은 이곳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했다. 무진스님은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학생들과 함께 주웠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교육하는 포스터를 그리는 미술대회도 열었다. 재단은 쓰레기통 30개를 학교에 기증했다.

스위스 법계사 cafe.naver.com/popkyesa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스님(오른쪽)



LA타임스, 한국 현대무술 '선무도' 소개 계승자 안도스님 이야기 실어

12월 26일 LA타임스는 한국의 현대무술인 '선무도'를 1면과 4면을 통해 집중 조명하며 평생 수련의 길로 정진하는 스님들의 삶을 기사로 보도했다.

선무도는 옛날 신라화랑들에게 전수된 심신 수행법으로서 고려, 조선시대 외침에 항거했던 승군들의 무예가 전승된 불가의 전통문화이다. 항상 변화하는 삶의 형태를 바르게 명상하고 관찰하여 지나친 육신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리고,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참 행복을 구현, 나아가 해탈(解脫:깨달음)을 증득하는 수행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양익스님은 흠어진 불교 관법수련을 한데 모으고 체계화하여 이를 승가에만 전수하셨다. 1970년대 양익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을 전수 받은 안도스님은 일반 대중 포교에 큰 선원을 세우고 불교강연관 수련법을 현대적 의미인 불무도로 개정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수련생과 지도자를 배출한 것이다.

선무도를 계승한 안도스님은 "선무도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동일시하는 무술로 자연에서 가장 훌륭한 자세를 빌려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몸동작과 호흡 마음 등 3가지를 중요시 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안도스님은 "같은 새끼줄이라도 도둑에게는 흉악한 줄이 되지만 선한 이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며 "몸도 마음도 그와 같이 새끼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도스님은 현재 세계불무도협회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강승불무도협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7 영진파스타 8층 반야원



선무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대만 불광산사, 불타기념관 낙성 세계평화기원법회

대만, 타이베이 - 대만 불광산사는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8일간 불타기념관 낙성식 및 부처님 치아사리 이운법회 등을 봉행하고 사회화합과 안정,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불광산사는 12월 25일 불타기념관 본관 전시장 제막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 불타기념관 낙성식, 불타기념관 개광(開光) 집안식, 반야심경 사경 100만 부 봉안식(29일), 대만 전통희곡 공연, 뮤지컬 '부처님의 생애', 시식천도법회, 삼귀의 5계 수계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잇따라 열고 불타기념관 낙성을 기념했다. 불타기념관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3과의 치아사리중의 1과를 모신 기념관이다.

12월 26일 부처님 치아사리 이운법회에

서 성운스님은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불타기념관 준공식을 계기로 사회화합과 안정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중국 심증스님을 비롯한 각국 11명의 대표단 스님은 법회에서 세계평화 기원문을 낭독하며, 세계평화 및 화합을 기원했다.

10여 년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식을 갖고 일반인에 공개된 불타기념관은 15,510㎡ 규모에 총 예산 100억 대만달러가 투입됐다. 기념관 내부에는 4군데의 법당을 비롯해 8곳의 전시장과 2천 여 명이 모일 수 있는 대각당(大覺堂)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앞에는 8정도를 뜻하는 8개의 탑과 가운데 4성제를 상징하는 탑이 있다. 기념관 앞에는 1만 명이상 모일 수 있는 길



이와 넓이가 각 100미터인 보리광장(菩提廣場)이 있고 광장 앞에는 만인(萬人) 활영장이 있어 향후 문화교육계와 불교계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영축총림 통도사 사부대중,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및 중국불교협회 대표단, 세계 각국 불광산사 1천여 개 사찰의 불자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달라이 라마, 칼라차크라법회 참석차 인도 방문

- IANS [2011. 12. 31]

인도, 보드가야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칼라차크라법회 시작 하루 전 12월 30일 기도를 집전하기 위해 불교 성지인 보드가야를 방문했다. 칼라차크라법회는 이번이 32번째로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달라이 라마는 보드가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1500년 된 마하보디사원으로 가서 기도를 했다.

달라이 라마는 기도가 끝나고 방종인들에게 칼라차크라법회가 세계평화와 인류를 위해 열리며, 이번 법회의 모토는 평화, 관용, 인류애라고 말했다. 76세의 달라이 라마는 인도를 종교의 땅이라고 하면서 인도인들의 세계 주요 종교에 대한 관용과 수용의 정신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의 티베트인 인권 탄압과 고문의 자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진실이 언제나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부 관리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를 위해 완벽한 경호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보드가야 칼라차크라광장에는 세계에

서 모여든 기도객 20만여 명이 이날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였다. 티베트 관리들은 칼라차크라법회에서 달라이 라마가 개회 날 사용할 경전을 번역하고 이를 배포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수천 명의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서 모여들었다. '보드가야의 좁은 거리가 승복을 입은 스님들로 붐비고 있다.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변했다.'고 보드가야에 배치된 한 경찰관이 말했다.



2011년 세계불교총회에서 만난 달라이 라마(좌)와 중회의장 보선스님

아트 폴리오 미술관, 신인작가들의 불교작품 전시

- Indian express [2012. 1. 2]

인도 - 불두과 선정에 든 부처님의 모습은 항상 시암 초드리를 매료시켰다. 그래서 시암은 벽을 온통 부처님의 얼굴 사진으로 장식했다. 초드리는 부처님을 주제로 만든 그림, 설치물, 폴라주 작품을 보여 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이 내 안의 영성을 일깨운다고 말했다.

초드리가 주로 부처님의 얼굴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반면, 다른 작가들은 법당, 절에 있는 조각물, 전각, 불교 관련 개념들을 작품에 활용한다고 안자나 비틀라가 말했다. 비틀라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구도역정을 철제 구조물로 독특하게 표현했다. 단지 부처님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도 모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다.

루벨 파스리치는 불교를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12 작품을 전시했다. 루벨은

미술 작업이 자신에게는 곧 수행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트 폴리오에서 아삼지역 출신 신인작가 수브라타 데브의 작품을 전시했다. 데브의 작품은 부처님과 자연의 관계를 강조한다. 데브는 발우, 스님, 절, 운장대 등 불교소재를 사용해서 부처님의 다양한 느낌을 표현해 냈다.

어떤 작가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이나 불교 유적을 그리는 반면, 다른 작가들은 미학적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다. 부처님을 소재로 한 그림은 평화와 고요를 상징하고 이것은 어떤 환경에도 어울리는 색감으로 표현되곤 한다고 파얄 주네자가 말했다. 파얄은 요즘 싯다르타가 어떻게 기도했고 깨쳤는지를 주제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룸비니 성역화에 정치적 개입 안 된다

- 불교포커스 [2011. 12. 13]

네팔, 룸비니 - 부처님 탄생성지인 네팔 룸비니 복원 및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지의 관광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네팔 문화부는 "한국이 제안한 '룸비니 평화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용했으며 현재 재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디네슈 하리 아디카리 네팔 문화부 장관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뒤 곧 이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네팔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의 도시 계획 실행을 위해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네팔 정부는 마오주의 정당 지도자인 뿌쉬빠 까말 다할(Pushpa Kamal Dahal)을 의장으로 하는 룸비니 평화도시 개발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를 결성했으며, 다할 의장 등 네팔 대표단은 지난 9월 뉴욕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총장과 만나 그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룸비니의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

은 특히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수백 명의 불교도들이 마오주의 정당 지도자인 뿌쉬빠 까말 다할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한 네팔 남부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것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스님 등 500명의 불교도들은 '룸비니 개발 프로젝트에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다른 정부위원회인 불교보존관계자위원회의 라빠 세르파도 "정치인들이 관광 명소화를 통해 룸비니 같은 종교 성지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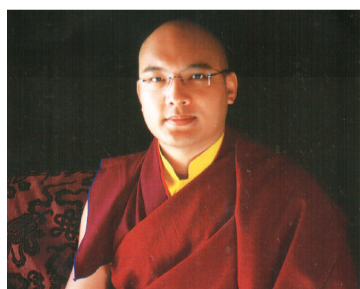
▼ 네팔 룸비니의 보리수 나무



까르마파 신년사 - www.kagyuooffice.org [2011. 12. 28]

제17대 까르마파 우기엔 트린리 도르지(Ugyen Trinley Dorje)가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사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2012년에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고 걱정했었습니다. 사실 내년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자비와 평정심을 기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11년에는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에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고통 속에 신음했던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과 미래에 만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새해를 맞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집중조명 직장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레그 버둘러스

그레그(Gregory Burdulis)는 “위대한 일은 많이 해서거나 빨리 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현명하게 일했을 때 생긴다. 잠시 멈춰 집중했을 때 일은 더 명확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레그는 재가 수행자로서 6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광고회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이 주 고객인 이 광고회사의 직원들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그레그는 지친 직장인들에게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지에 대해 상담을 해 준다.

그레그는 언제나 인간 잠재력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미국과 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여행했다. 화물을 싣는 기차를 탔고, 산에 올랐으며, 사하라사막 지역에서 기아구호활동도 하였다. 정신적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학과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영성에 대한 갈망으로 아시아에서 철학을 배우고 수행을 하면서 9년을 보냈다.

그레그는 6년 동안 버마에서 스님이 되어 선수행에 전념했다. 수행을 통해 충만함을 경험했고 깊은 정적 상태의 자유로움도 체험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또한 존재의 무상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물리적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심리적 고통은 선택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간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에 돌아온 그레그에게 삶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량이 되었다. 수행자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로 이것을 선택했다.

그레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념, 집중, 인내, 감사, 이해, 의도의 중요성, 행복에 대해 직장인들에게 알려준다.

1. 정념수행 그룹모임

이 모임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이완시키기 위한 수행모임이다. 매 시간 직장인들의 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원리와 수행법에 대해 토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행복을 증진시킨다. 부지런하게 집중력을 높이고 평정심을 키우며,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조복한다. 매일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법을 직장생활에도 응용한다. 직장인들은 매일 정신적, 육체적 수행을 4~7분 동안 하루에 두 번 반복해서 한다.

언제든 새로 익힌 치유법을 실행할 기회를 만들어 낸다. 직장인들은 이메일을 받아서 그날 배운 강의를 다시 보고 과제를 반복한다. 또 다른 짧은 이메일은 직장인들의



마음수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격려하여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2. 직장인들과의 일대일 상담

직장인들은 개인면담 시간에 이용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털어 놓는다. 직장인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바로 보고 이해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인권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변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지도를 받는다.

3. 개인 수행

20~45분의 멘트를 따라가며 수행하면 마음이 더 밝게 깨어 있을 수 있다. 개개인은 더 이완되고 마음은 더 열리게 되어 잘 집중한다. 이에 따라 그룹수행이 더 유연해지고, 직장인들의 공격성과 저항성이 적어

지면서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레그는 직장인들이 수행을 함에 따라 오히려 회사 측에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습관적 사고방식과 공포와 같은 감정반응의 조절, 복잡한 상황의 이해, 새로운 일에서의 돌출문제에 대한 인내심, 혁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창조력,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침착성 등을 기를 수 있다.

그레그는 말한다. “직장인들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 직장에 들어설 때 곧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객들을 포함한 회사 전체가 수행의 효력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면의 수행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만남, 단체 활동, 매일의 노력과 지도가 일과 삶에서 지속적인 마음수행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www.gregoryburdulis.com

할머니께 배운 삶의 지혜

- 부디스트도어 [2012. 1. 1]

나는 몇 주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기 위해 역에 갔을 때 전철이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으시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왜 사람들이 뛰어가는지 모르겠네. 다음 차가 곧 올텐데.”라고 차분히 말씀하셨다.

결국 삶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존 카밧친이 말한 대로 자동장치같이 살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머니는 이것을 매일 나에게 상기시켜 주셨다. 할머니는 내가 몇 초 만에 식탁보를 정리해 낼 때마다 돌아보시고 놀랐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난 내가 한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깨어 있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 마쳐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 있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현명한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할머니도 다른 사람의 지혜를 금방 알아차리신다. 언젠가 할머니는 여동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 모두 차 안에 있었는데 동생은 “아빠, 스위스가 큰 나라예요?”라고 물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므로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

하셨다. 한 시간 쯤 지났을 즈음 동생은 “아빠, 우리 아직 스위스에 있죠?”라고 물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 동생은 “거봐요. 스위스는 큰 나라잖아요.”라고 천진하게 말했다.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

어른들에겐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어린 동생에게 세상은 새로운 것이 가득한 광대하고 놀라운 곳이었다. 우리는 존재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산다면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 탁발 나서는 미얀마 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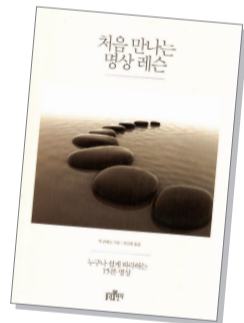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 책 콘필드 지음, 불광출판사

책 콘필드는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깨어 있으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명상이라고 한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수행법에 대해 알려준다. 호흡과 하나 되는 법으로부터 시작해 몸과 감정, 생각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 콘필드는 “일반적으로 마음은 10분 사이에 수백 수천 번 헤매입니다. 마음이 헤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전 생애 동안 그러했고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수행자는 점점 더 오래 더 자주 현재 순간에 존재하게 되어 마침내 망각과 환상, 기억 속에 묻혀 지내지 않게 된다.

감정과 대화하기 레슨에서는 온갖 번덕을 부리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분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다. 대부분의 사람이 슬픔, 두려움, 불안, 우울의 감정이 없다면 명상을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 콘필드는 이러한 어려움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들, 즉 화나 분노도 충만하게 경



험한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느끼는 화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해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화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책 콘필드의 자상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 콘필드는 명상과 사회적 책임 레슨에서 수행이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하고 따라서 명상으로 삶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혔다. 왜냐하면 명상은 우리가 두려움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과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마음 여는 것을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명상의 목적은 자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고 삶의 어떤 장면도 회피하지 않은 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운다. 책에 동봉된 안내 CD로 소개된 수행법을 직접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다. 편집부

아시아밝음공동체, 베트남과 중국의 전래 동화책 출간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스님)가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중국과 베트남 전래동화를 번역 출간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에서 “2011 이주민 쉼터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주여성 동화만들기 사업 중 일부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동화 ‘반다이, 반쫘’은 한글과 베트남어로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의 전통음식인 반다이, 반쫘의 유래를 담은 전래동화로 부모님의 은혜와 효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동화 ‘마량의 신비한 붓’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며, 권선징악을 담고있다. 이 동화책은 다문화가족 2세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자긍심과 제2외국어 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 아시아밝음공동체 김기현 기획실장은 “동화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동화책을 번역하고 삽화와 감수까지 맡아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아시아밝음공동체는 지난 2010년 이미 베트남 동화 ‘백마디 대나무(부처님의 가르침과 권선징악에 관한 내용)’을 출판 제작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동화로 불교적 이야기가 포함된 내용과 함께 현지 화가에게 삽화를 의뢰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화책 번역 사업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도,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후원계좌_ 농협 301-0072-7630-21
박춘현(아시아밝음공동체)

▼ ‘반다이, 반쫘’ 동화책으로 구연동화를 하고 있다.



불교계 이주민정책 토론회 개최 - 불교계 이주민 지원활동의 현재와 미래

지난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계 이주민정책 토론회’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웅기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불교계 이주민지원활동의 이론적 규명을 다룬 한림대 엄한진 교수, 불교계 이주민 지원활동의 현황을 밝힌 한국 YBA 이종남 정책 실장이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덕성여대 박수호 겸임교수,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병희 센터장, 아시아밝음공동체 김기현 기획실장이 맡아주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지관스님은 “토론회와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려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모은다면, 불자의 생각으로 이주민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이주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는 “국내 불자이주민이 최소 23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불교계 이주민지원 단체는 20여 개뿐이다.”고 밝히며 “2010년 기준, 정부가 관리하는 다문화센터 171개를 제외한 이주민지원 단체 수는 35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불교계의 이주민 지원 현실은 양적으로도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YBA 이종남 정책실장은 발제에서 마주협 회원단체들의 현실과 단체 활동가들이 겪은 어려움들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마주협의 진로를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병희 센터장은 불교계 이주민정책 토론회의 확대를 통한 기관과 종단간의 소통,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통한 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한목소리로 불교계 이주민 지원 분야가 저조한 원인이 스님과 불자들의 ‘무관심’임을 지적했다. 활동가들의 열악한 여건과 주지스님의 무관심



이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불교계 이주민지원 단체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국내 이주민 140만 시대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불교계 이주민 지원방향에 대해 마주협의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이후, 국제선센터에서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이 1박 2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회원단체 실무자들과 스님이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해 차담을 나누고, 강연을 듣는 등 오랜만에 다함께 모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네팔법당 용수사에서 미디어 촬영 편집 강좌 개설

지난 11월 27일부터 매주 일요일, 한국 YBA 동두천이주민센터 네팔법당 용수사에서 이주민을 위한 ‘미디어 촬영 편집 강좌’가 시작되었다. 사진과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타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MOU 체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요즘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의 연령대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젊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이주민들은 자기표현과 소통에 관심이 많다. 이번 강좌도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주민들의 적

극적인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 이 강의는 2월 12일까지 총 10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까지 배운다. 수료 후에는 각자 수료 작품을 만들어 상영회 및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작품이 나올지 자못 기대가 된다.

수강생인 안주라마(25세, 네팔)는 “평소 카메라로 그냥 찍기만 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어 더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 페이스북에 멋진 사진들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YBA 02-6414-1034



수업에서 이주민 수강생이 직접 촬영한 사물에서 숫자 찾기 과제

김포 마하이주민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자동차정비 교육 수료식 성료



지난 2011년 12월 31일, 김포 마하이주민지원센터(대표 지관스님)는 김포문화사 명상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자동차 정비 교육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자동차정비 교육은 체류가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창업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귀국 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기간 실기 위주의 집중교육훈련으로, 주말을 이용해 40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으로 재입국하게 될 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 수료증이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며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에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였던 이주노동자 30명은 그 후속 교육으로 자동차 정비교육에 참여하

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3개월 동안 48시간 김포마하이주민센터에서 위탁한 김포 직업훈련학원에서 자동차 정비 교육을 이수 하였고, 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을 받았다. 이 교육을 수료한 방글라데시의 라주씨는 “공장 일 때문에 빠지지 않고 매주 나와 교육 받는 것이 어려웠다. 방글라데시에서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전문 교육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포 마하이주민지원센터 031-8543-7605